



## 전직실업자의 구직장애요인 인식과 재취업활동 분석\*

최석현  
경기연구원

조창현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직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에 따라 다섯 가지 구직장애요인들이 재취업활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업자들의 재취업활동의 적극성이 실업급여 이외에 실업자들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분절된 노동시장 경험에 의해 구성된 본인의 재취업장애요인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년 실업급여를 신청한 20-50대 전직실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된 재취업장애요인 설문 자료를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연령·학력별에 따라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실업자들 본인의 능력과 조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여성, 저학력자에게 공통적으로 이력서 작성, 인터뷰 기술 등의 기초취업능력 부족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먼저, 청년층, 여성, 저학력자에 대한 기초취업능력을 지원하는 취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모든 전직실업자에게 쉽게 활용가능한 일자리정보를 원활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더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고 고용보험 재정 안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실업 전 노동시장 경험에 의하여 집단별로 형성된 차별적인 구직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제어: 실업, 전직실업자, 구직장애요인, 고용보험, 구직효능감, 고용서비스]

\* 이 논문의 교신저자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5336).

## I. 서론

현대 복지국가의 주요한 고용복지제도인 고용보험은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함께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하에서 선진 각국은 적극적 재취업 지원과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핵심 요소인 실업급여가 근로자들의 재취업 의지를 약화시키고 근로자들의 단기 실업에서 장기 실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Katz and Meyer, 1990). 이런 점에서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 성격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전직실업자들의 구직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들의 구직효능감을 높이는 고용보험 서비스의 제공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될 때 고용보험에 의한 재취업 의지 약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고용보험제도가 설계되었다. 즉, 자발적 실업 등을 실업급여 대상에 제외시키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엄격히 하는 한편,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실업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재취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김진옥, 1998; 강철희 외, 1999; 방하남·하윤숙, 2000; 남재량, 2005),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제도 가운데 실업자들의 적극적 재취업 지원이 관련 서비스를 통하여 전직실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고용센터는 전직실업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을 접수받을 때 실업자들의 구직장애요인에 따라 4개 유형별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최석현·김균, 2012). 이런 점에서 전직실업자의 구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파일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직실업자들의 주관적인 구직장애요인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전직실업자들은 구직장애요인의 난이도에 따라 구직을 포기하고 실업급여에 의존

하거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균, 2009; 최석현 · 김균,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전직실업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구직장애요인과 초기 구직활동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왜 특정 실업 집단이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인지, 반대로 실업자들의 구직적극성을 저해하는 집단별 특성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직원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직무능력, 정신적 · 육체적 능력, 보육 · 육아 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실업자들의 자기 인식이 실제 실업급여 수급 단계에서 이들의 구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이미 노동시장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직 실업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임금근로 활동을 한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전직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경험에 기반으로 구직장애요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같은 실업자들이라도 노동시장에 이미 활동하였던 전직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구직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업상태 이전 경험이 적극적 구직활동 혹은 실업급여 의존이라는 재취업활동전략 결정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근로자들의 재취업활동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DB(2011~2012)에 담긴 실업급여 신청자 가운데 20대에서 50대까지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재취업장애요인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를 재취업활동과 연계하여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기반을 두어 실업자들의 실업이행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실업자의 구직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실업자들이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의 구직의욕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실업자들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기존 시각이었다. 즉, 실업자들이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러한 구직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실업급여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Barron and Mellow, 1981; Gruber, 2011). 예를 들어, Gruber(2011)는 미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기간에 관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전직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가 되는 26주에 가장 많이 재취업을 한다고 언급하며,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실업급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업급여가 전직실업자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한계 인센티브를 줄이는 한편, 여가와 소비에 대한 상대적 비용을 왜곡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s)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Krueger and Meyer, 2002).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실업자들의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이들의 구직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과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rowning과 Crossely(2001)는 일부 연구들이 실업급여의 대체효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업자들은 제한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소비에 대하여 취업자들에 비하여 매우 예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득을 상실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하더라도 현금 보유량의 급격한 감소를 겪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활용해 소비나 여가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구직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직실업자들이 단순히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소비나 여가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구직활동에 나설지 여부는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과 수급 기간 요인과 실업자들의 구직효능감(job search efficacy)에 의

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구직효능감이란 실업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가령, 구직기술, 직무능력, 직업기술 등)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지칭한다(Wanberg, Watt, and Rumsey, 1996; 최석현 · 김균, 2012). 구직효능감 연구들은 전직실업자들의 구직활동에 관한 분석에서 실업자들의 구직결정 및 행동이 노동시장 상황에 비추어 실업자 본인에 의해 판단된 결과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실업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통해 자신의 재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행동의 기반이 되는 구직의욕의 강도가 결정된다(한영석 외, 2006).

따라서 구직효능감 연구들은 개인의 구직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Wanberg, Kanfer와 Rotundo(1999)는 실업자의 구직강도는 고용몰입, 재정적 어려움, 구직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Moynihan et al.(2003)은 구직효능감을 가진 구직자가 그렇지 않은 구직자에 비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업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탐색 행위를 하며 자신감 있게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김명언 · 노연희, 1998).

하지만 구직자들의 구직효능감이 실제 취업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직자의 구직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격증 취득, 성적, 재학 중의 근로경험 및 직업훈련 경험 등을 포함하지만, 실제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아직 노동시장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대학생의 경우, 자격증 및 성적 등이 구직활동에서 효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들의 구직효능감은 높을 수 있으나, 전직실업자의 경우 과거 노동시장의 경험에 비추어 본인의 자격증 및 성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직효능감은 낮을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유무와 취업성공의 관련성에 대해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자격증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이동임 · 김덕기, 2001),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천순·유진봉, 2004). 또한 김형만 외(2002)의 조사에서 대학졸업자의 자격증 소지여부는 채용결정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자격증 취득자의 특성에 따라 자격증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먼저 김안국·강순희(2003)는 자격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효과적이며, 그 효과는 자격증을 취득한 당해 연도보다 이후 2~3년에 걸쳐 발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규용·김용현(2003)은 전문대생의 경우에 전반적인 취업준비노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4년제 대졸자의 경우에 자격증만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채창균 외(2005) 연구에 의하면 자격증 취득은 재학 중 해외 연수 경험뿐만 아니라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 경험과 더불어 취업성과를 높이는 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업자의 구직효능감과 연관되는 요인 중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구직 네트워크이다. 실업자의 자격증 및 노동시장 경험 등이 구직활동에서 실제로 효과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구직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명확한 고용정보이기 때문이다(이병훈, 2002). 가령, Wanberg와 Kanfer(2001)는 구직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재취업 활동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유일·김소라(2013)는 구직효능감이 구직 네트워크 구직의도 효과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직 네트워크는 구직효능감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2. 노동시장 분절에 관한 선행연구

개인의 노동시장내 취업과 이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이다. 인적자본론에서 개인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개인의 교육이나 훈련이 지목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근거하여 개인의 임금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Becker, 2009). 이에 따라 인적자본이론가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보상을 임금으로 보상받기 위해 노동시장 내 이동을 추구할 것이며, 인적자본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이들의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다. 인적자본론과 연관되어 근로자의 구직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이다. 직업탐색이론의 핵심 개념은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으로, 구직자가 취업 시 받기를 기대하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인적자본 투자 규모에 대한 보상수준으로 의중임금을 설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기업의 일자리 제의를 수락 또는 거부한다(김동규, 2011).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제시하는 실제임금(시장임금) 수준이 개인의 의중임금 수준과 일치하거나 상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직장을 탐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적화하는 수준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 반면, 의중임금과 실제임금과의 격차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구직자의 구직의욕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중임금에 대한 연구들은 대졸자 청년의 의중임금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이에 따라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심재훈·황인창, 2010). 또한 청년층은 의중임금의 수준이 실제임금 수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은 청년층이 초기 임금에 대하여 큰 기대심리를 가진 반면에 노동시장 경험의 부재로 실제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동규(2011)는 근로자 전체로 보았을 때 대졸자 청년층의 의중임금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대졸자 청년층, 저연령,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졸업 평점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경우 의중임금 수준이 낮았다. 이런 점에서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의중임금의 수준이라기보다 의중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취업이 온전히 근로자의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Doeringer와 Piore(1971)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은 산업구조, 기업조직의 특성 등에 의하여 고임금, 고용안정의 특성을 가진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고용불안정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이 구분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가 분절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이동과 취업에 있어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가령, 2차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는 1차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보다 높은 고용불안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잦은 노동시장 내 이동을 경험하며, 이에 따라 실업과 재취업의 기간이 짧게 된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속에서도 성·연령·학력별로 일자리가 분절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가, 그리고 청년층보다 중·고령층이 2차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가령, 한 노동시장 안에서도 성별로 직종이 분리되는 경향이 강하며(금재호, 2004), 직종이나 기업 안에서 근무조건이나 임금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악한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정진화, 2007). 또한 연령대별로 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노동시장 이동과 취업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는 이른바 NEET층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남재량(2006)의 연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상태로 옮겨갈 확률이 크지만 일정한 연령이 지나가면 그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오세규(2003)의 연구는 취업 당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최선영·장경섭(2012)의 연구는 한국 남성근로자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이동을 분석한 결과 남성 연령대가 중고령층으로 이동할수록 공식임금고용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관되게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 취업할 확률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일 확률이, 외부노동시장보다 내부노동시장에 속할 확률이, 그리고 높은 임금수준일 확률이 크다고 보고하였다(김민경, 2003; 류기철, 2001).

또한 재취업시에도 성·연령·학력별로 실업자들의 재취업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남성과 여성의 취업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mes, Ramos and Sanchez, 2001). 정인수 외(2003)의 연구는 설문 조사대상 기업의 34.2%가 채용 시 성별 제한을 여전히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노동시장에서 남성만을 채용하는 기업은 27%, 여성만을 채용하는 기업은 7.2%로 여전히 남성이 선호되고 있어, 여성의 구직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출산·보육 등으로 여성이 일자리를 잠시 떠나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재취업의 기회가 더욱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무숙 외, 2010; 김종숙·이지은, 2012).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에 따라서도 취업가능성의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최근 노동통계에 따르면 40~50대 중년층



의 고용률이 20~30대의 고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년층의 경우 재취업시 청년층보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하는 경향에서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방하남 외, 2010).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전직실업자들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보다 성·연령·학력 등 개인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노동시장 상황을 경험하며, 재취업 시에도 이에 따른 구직장애요인에 대하여 상이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구직효능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측정 도구 및 주요 측정 변수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에 수록된 고용센터에서 작성한 구직자 재취업활동 계획서(Individual Action Plan, IAP)의 익명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직자 IAP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직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자격심사 종료 2주 후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이력과 재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구직활동 여부, 그리고 필요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12).<sup>2)</sup>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전직실업자들의 성·연령·학력별로 가지는 노동시장 경험에 기반하여 인식되는 구직장애요인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밝히고, 차별화된 구직장애요인에 따라 초기 구직활동이 결정된다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종속변수는 초기 구직활동 여부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독립변수는 실업자들에게 인식되는 본인의 재취업 장애요인이다. 본래 IAP 문항에서 제시되었던 장애요인은 7개이다(<표

2) 특히, IAP에 설문기재된 구직활동여부 응답정보는 구직자들이 실업 후 실업급여를 실제 수령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1> 참조). 구체적으로 ‘직무능력’ 문항은 일자리에서 특정 업무요구를 이해하고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며, ‘자격증’ 문항은 실업자들이 원하는 업무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재취업에 장애를 느끼고 있는지 묻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문항은 실업자들이 관련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지를 묻는 것이고, ‘보육·육아 등 가정환경’ 문항은 아이들의 보육·육아를 비롯한 가정환경이 근로활동에 제약을 주는지를 묻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령’ 문항은 실업자의 연령이 낮거나 높은 이유로 인하여 고용주들의 선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고, 또한 ‘기초취업능력’ 문항은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면접 기술 등의 부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보’ 문항은 실업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취득하지 못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IAP에서 제시한 7개 구직장애요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가정환경’ 항목을 구직장애요인보다 구직제한요인인 통제 변수로 설정했는데, 이는 실업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가정환경’ 요인이 전직실업자들의 노동시장경험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직장애요인은 5개 항목이다.

통제 변수는 세대주 여부, 정신적·육체적 장애 여부, 보육·육아의 가정환경 여부, 주수입원 여부, 기타소득 여부, 희망금액, 희망금액유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개인적 배경은 성별, 연령, 학력의 변수로 이루어졌다.<sup>3)</sup>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IAP 설문 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3) 로짓분석을 하기 위해서 <표 1>과 같이 구직활동 여부는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 0, 활동한 경우에 1로 코딩되었고, 5개의 구직장애요인 문항은 장애요인으로 느끼는 경우에 0, 느끼지 않은 경우에 1로 코딩되었다. 남녀 구분은 남자 0, 여자 1로 코딩되었으며, 통제변수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0, 해당되는 경우에 1로 코딩되었다. 그리고 모두 더미변수로 처리되었다.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취업활동 계획서(IAP) 설문 문항

측정 지표	IAP 설문문항
종속변수	구직활동 (있다=1)
재취업장애요인 인식여부 (아님=1)	직무능력
	자격증
	연령
	기초취업능력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면접기술 등)
개인적 배경	일자리정보취득능력
	성별 (여성=1)
	연령대
통제변수 (예=1)	학력
	세대주 여부
	정신적·육체적 장애
	가정환경(보육·육아 등)
	실업전 본인 수입이 가족 주수입원 여부
	실업급여 외 기타소득 여부
	희망금액 (로그)
희망임금유형 (시급, 일당, 월급, 연봉)	

## 2. 자료의 범위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분석대상 집단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직 실업자 집단<sup>4)</sup>이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할 대상은 노동시장에서 근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이며, 구체적으로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20대에서 50대까지의 실업자들이다.

4)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은 일정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서,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근로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이거나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만료된 사람들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실업상태에 진입한 이들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다(고용노동부, 2012).

이들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개인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분석기간 동안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이들은 총 615,543명이며, 이중 여성은 305,021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하고 남성은 310,522명으로 50.4%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20대가 102,225명으로 16.6%, 30대가 31.8%, 40대가 26.2% 50대가 25.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력별로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중 초졸이하가 6.0%, 중졸이 9.0%, 고졸이 38.6%, 전문대졸이 21.0%, 4년제졸이 23.4%, 대학원졸(석박사)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된 분석방법으로 활용한 로짓 모형은 독립변수가 이항분포를 가진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분석모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종속변수인 ‘실업자가 실업 후 구직상담을 받기 이전에 취업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찾기 위한 분석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실업자가 인식하는 재취업 장애요인이 이들의 재취업의지 혹은 재취업활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다.

<표 2> 분석 대상자의 주요 개인적 배경 현황

구분	빈도(명)	%	
성별	남성	310,522	50.4
	여성	305,021	49.6
연령대	20대	102,225	16.6
	30대	196,088	31.8
	40대	161,080	26.2
	50대	156,150	25.4
학력	초졸이하	36,861	6.0
	중졸	55,230	9.0
	고졸	237,657	38.6
	전문대졸	129,240	21.0
	4년제졸	144,101	23.4
대학원졸	12,452	2.0	
구직활동여부	아니오	266,571	43.3
	예	348,544	56.7

## IV. 분석결과

### 1. 개인적 배경에 따른 구직장애요인 기술분석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적 배경에 따라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경험이 차별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개인적 배경에 따라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 차별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배경에 따라 실업자의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분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 1) 성별 구직장애요인 분포

먼저 성별에 따른 취업가능성의 차별화가 이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 성별에 따라 실업자가 인식하는 구직장애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sup>5)</sup> 첫째 전직실업자 중 직무능력이 취업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남성 중의 비율이 여성 중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29.3%의 비율로 응답했으나, 여성 중의 비율인 27.2%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격증의 유무 혹은 숫자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식한 비율의 경우 남성 중의 비율이 여성 중의 비율(27.5%)보다 낮은 24.1%의 비율을 보였다. 본인의 연령이 취업에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남성 중의 비율이 19.6%, 여성 중의 비율이 18.1%로 나타났다. 이력서 혹은 자기소개서 작성능력 및 면접능력이 부족하여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한 비율의 경우 남성 중의 비율이 13.7%, 여성 중의 비율이 14.6%로 나타났다. 일자리정보취득능력이 취업장애요인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남성 중의 응답 비율이나 여성 중의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5) 직무능력 요인에서 남자 중 응답 29.3%는 모든 남자 중에서 직무능력을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하며,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70.7%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인별 비율의 남녀 합계가 100%로 되지 않는다.

〈표 3〉 성별 중에 구직장애요인 존재를 긍정한 비율 (단위: %)

	남성 중 응답	여성 중 응답
직무능력	29.3	27.2
자격증	24.1	27.5
연령	19.6	18.1
기초취업능력	13.7	14.6
일자리정보취득능력	57.4	57.3

## 2) 연령별 구직장애요인 분포

전직 실업자의 연령이 개인의 취업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다. 이런 점에서 전직실업자 중에 구직장애요인에 대한 인식도 연령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무능력, 자격증 유무, 기초취업능력을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졌지만, 연령을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일자리정보취득능력을 제외하면, 20대의 경우 자격증의 유무 혹은 숫자 등을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직무능력, 기초취업능력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30대의 경우 직무능력 부족이 구직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직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격증, 기초취업능력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40대의 경우 30대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50대의 경우 연령 요인이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젊은 세대에서 구직장애요인으로 지목되던 항목의 응답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보취득능력을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느 세대에서나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 연령별 중에 구직장애요인 존재를 긍정한 비율 (단위: %)

	20대 중 응답	30대 중 응답	40대 중 응답	50대 중 응답
직무능력	34.4	33.0	27.3	19.0
자격증	41.4	29.1	23.1	14.1
연령	3.0	10.8	22.0	36.3
기초취업능력	29.2	16.9	9.2	6.1
일자리정보취득능력	55.2	57.4	60.2	55.7

### 3) 학력별 구직장애요인 분포

학력 또한 실업자들의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직실업자 중에 구직장애요인을 인식하는 정도가 학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 <표 5>에서 먼저 학력이 높아질수록 직무능력, 자격증, 기초취업능력을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아진 반면, 연령이 취업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응답 비율은 낮아졌다. 그러나 일자리 정보 취득의 어려움이 재취업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마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들 응답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직자들이 고학력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구인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학력별 중에 구직장애요인 존재를 긍정한 비율 (단위: %)

	초졸이하 중 응답	중졸 중 응답	고졸 중 응답	전문대졸 중 응답	대학교졸 중 응답	대학원졸 중 응답
직무능력	15.5	15.7	26.2	33.2	34.7	31.2
자격증	9.1	13.6	25.2	31.1	31.0	24.0
연령	31.7	28.5	21.0	13.5	13.6	14.8
기초취업능력	4.6	5.9	11.1	18.2	20.8	21.1
일자리정보취득능력	54.5	56.1	58.5	57.2	56.6	59.0

## 2. 전직실업자 재취업 결정요인의 전체 로짓회귀분석

다음 <표 6>은 전체 변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6)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구직장애요인 중에서 직무능력(-.055), 기초취업능력(-.109), 일자리정보취득의 어려움(-.432)을 구직장애요인으로 응답한 실업자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보다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러한 재취업장애요인들이 전직실업자들의 재취업활동을 약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격증 유무 및 개수(.158)를 구직장애요인으로 응답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하여 구직활동에 더 소극적일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격증 요인이 전직실업자들에게 구직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수로 설정된 전직실업자의 개인적 배경(성별, 연령별, 학력별)에 따라 실업 초기 구직활동의 적극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실업 초기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대별로 재취업활동 가능성을 살펴보면,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실업자의 경제적 환경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실업자의 실업 이전 수입이 가정내 주요 수입원이었을 때, 세대주였을 때 재취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희망임금유형 중 월급 형태를 원하는 실업자일수록 다른 유형의 임금 형태를 원하는 이들보다 재취업활동에 가장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6) 분석된 결과의 Pseudo  $R^2$ 는 0.04로 모형의 설명력은 높지 않으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구조화된 설문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아니라 IAP 설문으로 생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변수를 포함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 관심은 IAP 설문문항에서 제시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어 최종 분석결과를 채용했다.

7) 분석 결과는 독립변수 x축과 종속변수 y축에서 0과 1의 의미, 그리고 계수(값)의 크기와 부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표 6> 전직실업자 재취업 구직활동 결정요인 로짓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구직활동(있다=1)		b	s.e
구직장애요인 (아님=1)	직무능력	-0.055***	0.006
	자격증	0.158***	0.006
	연령	0.006	0.008
	기초취업능력	-0.109***	0.007
	일자리정보취득능력	-0.432***	0.006
개인적 배경	성별(여성=1)	-0.495***	0.007
	연령대(Base=50대)		
	20대	-0.059***	0.011
	30대	-0.058***	0.009
	40대	0.061***	0.008
	학력(Base=대 학원졸)		
	초졸이하	-0.558***	0.024
	중졸	-0.540***	0.022
	고졸	-0.488***	0.020
	전문대졸	-0.376***	0.021
	4년제졸	-0.176***	0.020
통제변수	세대주여부(예=1)	0.084***	0.006
	정신적·육체적 장애(예=1)	0.308***	0.021
	보육·육아 등 가정환경(예=1)	0.452***	0.012
	주수입원여부(예=1)	0.072***	0.006
	기타소득여부(예=1)	-0.013	0.012
	희망임금금액(로그)	0.250***	0.008
	희망임금유형(Base=시급)		
	일당	-0.570***	0.030
	월급	-0.638***	0.034
	연봉	0.500***	0.024
상수항	-1.891***	0.091	
N	615,518		
Log likelihood	-402996.27		
Pseudo R <sup>2</sup>	0.043		

주: \*: p<.05, \*\*: p<.01, \*\*\*: p<.001

### 3. 성·연령·학력별 구직장애요인과 재취업 구직활동 분석

본 연구는 실업자에게 인식되는 구직장애요인이 개인적 배경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구직자의 재취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 여기에서 전직실업자중 성별에 따라 재취업장애요인 인식이 재취업구직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했다. <표 7>에 따르면, 구직장애요인 인식과 재취업활동 간의 관계에서 기초취업능력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초취업능력 부족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여성 실업자보다 실업 이후 구직활동에 더 소극적인 반면, 반대로 기초취업능력 부족을 인식하고 있는 남성 실업자가 그렇지 않은 남성 실업자보다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구직장애요인과 재취업활동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된 실업자의 경제적 환경 항목에서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여성 실업자들이 주수입을 담당했던 경우 실업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남성 실업자보다 재취업환경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 이전에 전직실업자 자신의 수입이 가정의 주 수입원이었을 경우, 그러한 여성 실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취업활동에 더 적극적인 반면, 그러한 남성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직활동에 더 소극적일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이외에 기타 수입원을 가진 남성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남성 실업자보다 구직활동에 더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기타 수입원을 가진 여성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여성 실업자보다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성별에 따른 재취업활동과 구직장애요인간의 관계에 관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변수 구분		남성 실업자		여성 실업자	
종속변수: 구직활동(있다=1)		b	s.e	b	s.e
구직장애요인 인식여부 (아님=1)	직무능력	-0.077***	0.009	-0.030***	0.009
	자격증	0.075***	0.009	0.232 ***	0.009
	연령	-0.142***	0.010	-0.082***	0.010
	기초취업능력	-0.073***	0.011	0.078 ***	0.011
	일자리정보취득능력	-0.477***	0.008	-0.388 ***	0.008
연령 (base=50대)	20대	-0.209***	0.016	0.000	0.016
	30대	-0.054***	0.012	-0.047 ***	0.014
	40대	0.078***	0.011	0.056 ***	0.013
학력 (base=대학원졸)	초졸이하	-0.454***	0.034	-0.690 ***	0.033
	중졸	-0.387***	0.032	-0.725 ***	0.031
	고졸	-0.346***	0.030	-0.639 ***	0.028
	전문대졸	-0.254***	0.030	-0.493 ***	0.028
	4년제대졸	-0.148***	0.030	-0.200 ***	0.028
희망임금유형 (base=연봉)	시급	-0.559***	0.056	-0.389 ***	0.036
	일급	-0.826***	0.041	-0.383 ***	0.056
	월급	0.677***	0.028	0.099 ***	0.037
세대주여부(예=1)		0.140***	0.009	0.048 ***	0.008
정신적·육체적 장애(예=1)		0.323***	0.025	0.258 ***	0.041
보육·육아 등 가정환경(예=1)		0.082***	0.029	0.528 ***	0.013
주수입원여부(예=1)		-0.051***	0.011	0.120 ***	0.008
기타소득여부(예=1)		-0.059***	0.019	0.025	0.015
희망임금(로그)		0.303***	0.011	0.102 ***	0.013
상수항		-1.548***	0.114	-1.628 ***	0.145
N		310,505		305,013	
Log likelihood		-196277.2		-10337.15	
Pseudo R <sup>2</sup>		0.022		0.024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이미 본 연구는 앞서 <표 4>의 기술분석에서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와 50대로 재취업활동 패턴의 명확한 구별을 확인한 바, <표 8>에서 전직실업

자 중 청년층(20대와 30대)과 중장년층(40대와 50대)의 연령대에 따라 재취업장애요인 인식이 재취업 구직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직무능력과 기초취업능력의 경우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자신의 직무능력을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청년층 실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재취업을 위한 구직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능력을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중장년층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재취업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년층 실업자들은 본인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무능력 부족 인식이 청년층 실업자에게 구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업기초능력 항목은 직무능력 항목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중장년층 실업자들은 본인의 취업기초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만, 반대로 청년층 실업자는 본인의 취업기초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시 재취업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업급여 이외에 기타 수입원을 가진 장년층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장년층 실업자보다 구직활동에 더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기타 수입원을 가진 청년층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청년층 실업자보다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연령에 따른 재취업활동과 구직장애요인간의 관계에 관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변수 구분		청년층(20-39세) 실업자		중장년층(40-59세) 실업자	
종속 변수: 구직활동(있다=1)		b	s.e	b	s.e
취업장애요인 인식여부 (아님=1)	직무능력	0.028***	0.008	-0.155***	0.009
	자격증	0.254***	0.008	0.030**	0.010
	연령	-0.137***	0.014	-0.117***	0.009
	기초취업능력	0.056***	0.009	-0.077***	0.014
	일자리정보취득능력	-0.408***	0.008	-0.458***	0.008

성별	여성	-0.455***	0.009	-0.552***	0.010
학력 (base=대 학원졸)	초졸이하	-0.670***	0.075	-0.366***	0.036
	중졸	-0.665***	0.046	-0.353***	0.035
	고졸	-0.626***	0.026	-0.290***	0.034
	전문대졸	-0.498***	0.025	-0.141***	0.035
	4년제대졸	-0.218***	0.025	-0.125***	0.035
희망 임금 유형 (base=연봉)	시급	-0.422***	0.052	-0.618***	0.037
	일급	-0.325***	0.064	-0.909***	0.044
	월급	0.082*	0.036	0.789***	0.032
세대주여부(예=1)		0.133***	0.008	0.039***	0.010
정신적·신체적 장애(예=1)		0.270***	0.048	0.307***	0.023
보육·육아 등 가정환경(예=1)		0.599***	0.014	0.196***	0.021
주수입원여부(예=1)		0.115***	0.008	0.019*	0.009
기타소득여부(예=1)		0.028	0.018	-0.043**	0.016
희망 임금(로그)		0.107***	0.013	0.338***	0.011
상수항		-1.364***	0.152	-1.535***	0.126
N		298,297		317,221	
Log likelihood		-196367.63		-205948.41	
Pseudo $R^2$		0.043		0.044	

주: \*:  $p < .05$ , \*\*:  $p < .01$ , \*\*\*:  $p < .001$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표 9>에서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학력에 따라 재취업장애요인 인식이 재취업 구직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다. 구직장애요인 중 직무능력 항목에서 고졸 이하 학력층과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층에서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졸이하 학력층 실업자의 경우 직무능력이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전문대졸 이상 학력층 실업자의 경우 직무능력이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록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지만, 취업기초능력을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고졸이하 학력층 실업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졸이하 학력층 실업자보다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대졸 이상 학력층에서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표 9〉 학력별 재취업활동과 구직장애요인간의 관계에 관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변수 구분		고졸이하 실업자		대졸(전문졸)이상 실업자	
종속변수: 구직활동(있다=1)		b	s.e	b	s.e
구직장애요인 인식여부 (아님=1)	직무능력	-0.183***	0.009	0.057***	0.009
	자격증	0.069***	0.009	0.235***	0.009
	연령	-0.104***	0.009	-0.133***	0.012
	기초취업능력	0.022	0.013	-0.009	0.010
	일자리정보취득능력	-0.449***	0.008	-0.419***	0.009
성별	여성	-0.549***	0.009	-0.420***	0.009
연령 (base=50대)	20대	-0.162***	0.016	-0.029	0.018
	30대	-0.107***	0.011	-0.012***	0.016
	40대	0.055***	0.009	0.089***	0.016
희망임금유형 (base=연봉)	시급	-0.621***	0.036	-0.498***	0.059
	일급	-0.996***	0.046	-0.686***	0.069
	월급	0.832***	0.033	0.223***	0.034
세대주여부(예=1)		0.081***	0.009	0.100***	0.009
정신적·신체적 장애(예=1)		0.290***	0.023	0.350***	0.049
보육·육아 등 가정환경(예=1)		0.250***	0.017	0.647***	0.016
주수입원여부(예=1)		0.024**	0.009	0.121***	0.009
기타소득여부(예=1)		-0.017	0.016	0.002	0.018
희망임금(로그)		0.356***	0.012	0.167***	0.012
상수항		-2.368***	0.119	-2.311***	0.146
N		329,741		285,777	
Log likelihood		-217879.12		-184908.21	
Pseudo $R^2$		0.041		0.04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직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에 따라 직무능력, 자격증, 연령, 기초취업능력, 일자리정보취득능력의 구직장애요인들이 재취업활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차 실업인정을 받은 구직자들 중 20대에서 50대까지의 실업자들의 IAP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구직장애요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직무능력, 자격증, 연령, 기초취업능력, 일자리정보취득능력 요인에서 성별 차이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무능력, 자격증, 기초취업능력 요인이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던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령 요인이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직무능력, 자격증, 기초취업능력 요인이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연령 요인이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층과 고학력층에서 구직기술과 업무능력 등이 전직실업자의 구직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중고령층에서 청년층에 비하여 연령 요인이 구직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보취득능력 요인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구직장애요인이 재취업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전체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로짓분석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자격증 유무나 개수 등이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더 소극적으로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히려 전직실업자 중 직무능력, 기초취업능력, 일자리정보취득능력이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업 초기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직 실업자 중 구직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실업자들은 실업 초기부터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구직활동을 적극

적으로 하지 않으며, 반대로 구직효능감이 낮은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재취업에 상대적으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실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실업자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을 기다리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전직실업자들의 구직강도를 높여 조기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업자들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직후부터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지도와 관련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을 하고 2주 후, 즉 실업급여 판정이 이뤄진 뒤에 첫 번째 구직 상담을 실시되고 있으며,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직동력은 다시 이후 2주 간 실업인정 기간에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성·연령·학력별로 5가지 구직장애요인이 실업 초기 전직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각 집단별 로짓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구직장애요인 중 기초취업능력 요인이 두 집단의 구직행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취업능력을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더 소극적인 반면, 기초취업능력을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령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직무능력과 취업기초능력 요인에서 청년층과 중고령층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직무능력과 취업기초능력을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청년층은 그렇지 않은 청년층보다 구직활동에 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두 요인을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중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중고령층에 비하여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학력별로 비교했을 때, 직무능력을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은 그렇지 않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보다 구직활동에 더 소극적인 반면, 그렇게 인식하는 고졸이하 학력자들은 그렇지 않은 고졸이하 학력자보다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10>과 같이, 개인적 배경에 상관없이 자격증 요인을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실업자보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



동에 더 소극적일 수 있다. 즉, 자격증 요인이 전직실업자들의 구직효능감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연령 요인과 일자리정보 취득능력 요인을 구직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실업자보다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실업자들이 연령 및 일자리정보취득능력 요인에 의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실업자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 성·연령·학력별 구직장애인식 여부에 따른 재취업 취업활동 영향 요약

	직무능력	자격증	연령	기초취업능력	일자리 정보취득능력
남성	+	-	+	+	+
여성	+	-	+	-	+
청년층 (20대와 30대)	-	-	+	-	+
중고령층 (40대와 50대)	+	-	+	+	+
고졸이하 학력층	+	-	+	(-)	+
전문대졸이상 학력층	-	-	+	(+)	+

주: +: 적극적 구직활동, -: 소극적 구직활동, (): 유의미하지 않은 값.

이같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면, 첫째, 전직실업자들의 구직장애요인 인식과 구직장애요인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대한 영향이 실업자들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학력, 여성, 청년 실업자들에게 있어 구직효능감을 낮추는 구직장애요인은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기술 등의 기초취업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재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업 초기부터 고용센터의 적극적인 취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빈도분석의 결과처럼 전직실업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상관없이 일자리정보취득능력을 구직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는 실업자들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초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로짓 분석 결과는 고용센터의 일자리 알선 역할이 전직실업자의 재취업활동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원활히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구직활동은 구직자들의 구직효능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전직실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고용 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전직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실업자들의 구직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 성·연령·학력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연령·학력별 분절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용률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실업으로 이행기간 중에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분절적 경험에 따라 가지는 재취업을 위한 동기와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이행의 경로가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들을 기반으로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경험과 이에 기원한 구직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실업자 프로파일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실업자들의 조기 재취업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감소를 통한 고용보험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철희·김교성·김진욱. (1999).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모수적 생존모델(Log-Normal Model)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1-31.
- 고용노동부. (2012). 「고용보험 업무편람」, 고용노동부.
- 고재성·이건남·김성남·변정현. (2009). 「청년층 구직역량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김재호. (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4). 노동시장이중구조와 성차별. 「응용경제」, 6(3): 259-289.
- 김균. (2009).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직자 세분화 유형개발 연구」, 한국고용

정보원.

- 김동규. (2011). 대출 청년층의 눈높이가 첫 깃장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고용과 직업연구」, 5(2): 23-50.
- 김명언 · 노연희. (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활동. 「한국심리학회지」, 17(1): 115-137.
- 김민경. (2003). 「정규, 비정규직으로의 미취업 탈출용인에 대한 연구: 고용형태별 및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 김안국 · 강순희. (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23-52.
- 김우영. (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청년층의 취업과 소득을 중심으로」,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고용정보원.
- 김중숙 · 이지은. (2012). PSM 방식을 이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 손실 추정. 「여성연구」, 1(통권): 75-101.
- 김진욱. (1998).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탈피에 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형만 · 장홍근 · 전재식 · 유성재. (2002). 「대학 · 전문대생 졸업생의 취업 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남재량. (2005).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8(3): 111-139.
- \_\_\_\_\_. (2006). 이슈분석: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4: 23-33.
- 류기철. (2001).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1): 207-230.
- 민무숙 · 오은진 · 이시균. (2010).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서비스 발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성재 · 반정호. (2000). 대출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방하남 ·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 김지경 · 신인철. (2010). 「한국 베이비붐 세

- 대의 근로생(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 하운숙. (2000).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재취업경로분석. 「사회보장연구」, 16(1): 25-50.
- 성효용 · 김민경 (2003).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Women's Study Forum*, 2(통권): 117-148.
- 심재훈 · 황인창(2010). 대졸자의 눈높이와 노동시장 성과.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논문집」, 한국고용정보원: 358-372.
- 오세규. (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경제학고 석사학위논문.
- 유일 · 김소라(2013).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구직의도 영향요인 및 인과구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198-212.
- 이규용 · 김용현. (2003). 대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3.
- 이동임 · 김덕기. (2001).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훈. (2002).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25(1): 1-21.
- 이병희.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26(1): 1-22.
- 이효수 · 류재술. (1990). 단층별 임금함수추정과 단층간 임금격차분해. 「경제학연구」, 38(1): 101-123.
- 임천순 · 유진봉. (2004). 대학 졸업생의 채용결정요인 분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2(4): 311-332.
- 정인수 (편) (2011). 「이행노동시장 이해과 고용전략 종합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정인수 · 금재호 · 조준모 · 김동배. (2003).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 · 남재량 · 이승우. (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화. (2007).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혼인상태 및 직종

- 특성별 비교-. 「노동경제논집」, 30(2): 33-60.
- 조민수. (2008).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17-746.
- 채창균. (2003). 대학생의 재학 중 일자리 경험과 취업준비. 「직업교육연구」, 22(1): 169-184.
- 채창균 · 최지희 · 김안국 · 오호영 · 옥준필 · 최영섭 · 김승보 · 정재호. (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석현 · 김균. (2012).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8(2): 181-209.
- 최선영 · 장경섭.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한국사회학」, 46(2): 203-230.
- 한영석 · 탁진국 · 유태용 · 한태영 · 안상수 · 신강현 · 박혜정. (2006). 중 · 장년층 실직자의 구직강도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19(2): 171-191.
- 황수경 (2011). 「실업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Barron, J. M., and Mellow, W. (1981). Changes In Labor Force Status Among The Unemployed.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6(3): 427-441.
- Becker, G. S. (2009).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ck, D. A., Jeffrey A. S., Mark C. B. and Brett J. N. (2003). Is the Threat of Reemployment Services More Effective than the Services Themselves? Evidence from Random Assignment in the UI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93(4): 1313-1327.
- Browning, M., and Crossley, T. F. (2001)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Levels and Consumption Chang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0(1): 1-23.
- Doeringer, P. B., and Piore, M. J.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New York: ME Sharpe.

- Gómez, L. N., Ramos, I. A. and Sanchez, C. D. (2001). Youth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Spai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0(2): 139-149.
- Gruber, J. (2011).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New York: Macmillan
- Hodson, R., and Kaufman, R. L. (1982). Economic Dualism: A Critical Revie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6): 727-739.
- Kanfer, R., Wanberg, C. R., and Kantrowitz, T. M.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5): 837-855.
- Katz, L. F., and Meyer, B. D. (1990). The Impact Of the Potenti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1): 45-72.
- Krueger, A. and Meyer, B. (2002) "Labor Supply Effects of Social Insurance." I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4, Auerbach, Alan and Feldstein, M. Amsterdam: North-Holland
- McFadden, D. (1980). Econometric Models For Probabilistic Choice Among Products. *Journal of Business*, 53(3): S13-S29.
- Moynihan, Lisa M., Roehling, Mark V., LePine, Marcie A., and Boswell, Wendy R. (200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Job Search Self-Efficiency, Job Interviews,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8(2): 207-233.
- Saks, A. M., and Blake E. A. (1999).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Job Search Behaviors On The Employment Status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335-349.
- Wanberg, C. R., and Kanfer, R.,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Business and Applied Psychology*, 86(5): 837-855.
- Wanberg, C. R., Kanfer, R., and Rotundo. M. (1999). Unemployed Individuals: Motives, Job-Search Competencies, and Job-Search Constraints as Predictors of Job-Seeking and Reemployment. *Journal of Business and*

*Applied Psychology*, 84(6): 897-910.

Wanberg, C. R., Watt, J. D., and Rumsey, D. J. (1996). Individuals Without Jobs: An Empirical Study Of Job-Seeking Behavior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1): 76-87.



##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Barriers to Re-employment with Job Seeking Activities of the Unemployed**

**Choi, Seok Hye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Jo, Chang Hyon**  
IPAID, Yonsei university, Korea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arriers to re-employment for the unemployed who experienced involuntary job loss and their job-seeking activities in Korea. This research assumes that unemployed's enthusiasm towards job search is affected not only by unemployment benefit alone but also obstacles created by their previous labor market experiences. Based on these assumption, the research analyzed Korean Employment Insurance data on unemployment benefit applicants aged between 20 to 50 in 2011 using logit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what the unemployed perceived as obstacles to re-employment differed by gender, education, and age from labour market experiences. However, the results showed that self-perceived professional skill shortage as barriers to re-employment commonly and negatively related with job seeking activities of the unemployed. Contrarily, even though the unemployed perceived employment information deficiency and age factor as their barriers to re-employment, they actively search new jobs at the early stage of unemployment regardless of their individual backgrounds.

**[Key Words: Unemployment, Employment Insurance, Job Seeking Efficacy,  
Public Employment Service]**

---

논문접수일: 2016년 4월 18일 / 심사일: 2016년 4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7일



제1저자: 최석현(Choi, Seok Hyeon)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2010년 사회정책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제목은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Human and Social Capital of Immigrants on Labour Market Integration: A case study of Filipino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부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 분석, 빈곤정책, 제도연구 등이고, 저술을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공저, 2013, 한울출판사) 등이며, 논문으로는 “고용위기시기(2008-2010) 한국 고용서비스 생산성 변화 분석: 매크로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을 중심으로”(2012) 등 다수가 있다. (shsego@naver.com)

교신저자: 조창현(Jo, Chang Hyon)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개발, 학습조직, 사회자본, 사회적 기업 등이다.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한국 준정부조직의 학습조직 특성과 ‘공공성과’와의 관계”(공저, 2010), “사회적 기업의 사회자본과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2012), “탄자니아 공동체의 참여와 사회자본에 대한 실증 연구”(2015), “주관적 건강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사회자본 효과 실증분석”(2015), “지속가능발전 추진동향과 정부의 대응방향: 향후 Post-2015 SDG의 맥락에서”(2015), “탄자니아 농촌지역 삶의 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2016) 등이 있다. (joch21c@hanmail.net)